3. 근로자의 의무실 이용실태

① 의무실 이용자는 전체 근로자의 51.2 % 였고 총 이용건수는 4,297건이었다. 전체 근로자 1인당 연간 평균 4회의 이용을, 의무실 이용자 1인당 평균 7.9회의 이용을 보였다. 일평균 이용건수는 15건이고 월평균 358건이다.

② 일반건강진단 유소견자의 61.7 % 가 의무실을 이용했고, 이들의 1인당 연간 평균 이용횟수는 9.4회였다. 특수건강진단 유소견자 22명중 2명만이 의무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계절별 이용 양상은 겨울과 봄철의 이용이 많고 여름철 이용이 낮게 나타났다.

④ 요일별 이용 양상은 금요일이 가장 높은 이용율을 보이고 다음이 월요일로 나타났다. 35세이하 연령군은 월요일 이용이 높고 35세이상 연령군은 대체로 금요일 이용이 높았다.

사무직 경우 월·화요일 이용이 높고 기능직 근로자 경우 대체로 금요일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의무실 산업간호원의 건강문제 처치양상

건강문제에 대한 산업간호원의 처치 양상은 투약이 79.9 % 를 차지하고 측정과 관리는 9.9 %, Dressing 은 5.4 % 로 대부분의 처치가 투약으로 나타났다.

산업체 근무 건강관리 보건 담당자의 근무실태조사

최신의학, 제30권 제2호, 1987

문정순 · 김순례

1986년 5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서울, 경기지역 일부 산업체에 근무하는 건강관리보건담당자 36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근무실태와 산업보건 업무활동 실시정도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산업보건 인력의 배치분포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의 100명 이상업체에 대한 배치율은 59.3 % (192개소)였으며, 근무형태는 전담, 겸직인 경우가 80.8 %, 촉탁이 19.2 % 였다.

보건관리자의 배치율은 59.9 % (220개소)였으며, 이들의 근무형태는 전담 7.27 %, 겸직이 8.18 %, 촉탁이 84.5 % 로 대부분 법규정에 의해 명목상 배치되고 있었다.

건강관리보건담당자의 배치율은 67.3 % 로 타인력에 비해 비교적 높았으며 이들은 29.9 % 가 전담으로, 59.1 % 는 겸직으로, 10.9 % 는 촉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산업위생보건담당자의 배치율은 39 % 였으며 전담율은 18.8 %, 겸직이 66.4 %, 촉탁이 14.6 % 였다.

간호원의 배치율은 19.6％였으며 사업체규모가 클수록 간호원 배치율도 높았고 이들은 100％ 전담근무를 하고 있었다.

2) 건강관리보건담당자의 자격배경은 간호원이 25.1％, 보조원 24.3％, 기타가 23.1％였으며 산업위생보건감당자는 기타가 31.5％, 기사 20.3％, 보건직이 11.9％의 분포로 나타났다.

3) 건강관리보건담당자들의 근무조건은 1부제 근무가 76.6％, 2부제 이상이 23.4％였다.

근무시간은 8시간 근무가 55.6％, 8시간 이상 12시간 근무가 44.3％로 업체규모가 커질수록 근무시간도 길어지고 업체규모와 근무시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3$).

4) 건강관리보건담당자들의 월평균보수는 19만원이하가 33.7％였고 20－29만원 36.9％, 30만원 이상이 29.2％의 분포를 보였고 업체규모가 커질수록 월보수는 증가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34$).

5) 조사대상업체의 96.2％가 지정병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의무실은 25.2％만이 단독의무실을 소유하고 있었고 20.8％는 타부서와 겸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실 유무에 따른 경영주의 산업간호에 대한 태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31$).

6) 대상자들의 현직의 선택동기는 32.5％가 보수 때문에, 19.6％는 근무조건, 17.8％는 사명감, 16.4％는 기타, 13.5％는 우연히 일하게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의 교육배경과 현직의 선택동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

7) 대상자들의 교육배경이 일반대졸군에서는 실책임자나 계장·과장이 33.5％, 간호대졸 14.3％, 고졸군 10.7％로서 교육배경과 현직급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

8) 대상자들 교육배경과 보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p=0.000$) 학력이 높고 전문직일수록 보수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9) 산업보건업무활동의 실시정도는 근로자에 대한 간호활동이 25.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환경위생 및 안전관리활동은 13.1점, 산업보건사업 운영활동은 8.7점, 근로자 복지활동은 4.6점으로 가장 낮았다.

근로자 간호제공은 업체규모, 업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06$, $p=0.002$) 제조업보다 기타군이 높았다.

환경위생 및 안전관리활동은 규모, 업종, 교육배경, 경력기간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산업보건 사업운영활동의 실시점수는 업체규모, 업종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04$, $p=0.000$) 100－299명군과 500－999명군보다 1,000명 이상군이 높았고 기타군이 제조업보다는 높았다.

근로자 복지활동은 업체규모, 업종, 교육배경, 경력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